

기적의 광주일고, 대통령배 야구 8년만에 우승



◀23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4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끝내기 안타로 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고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중앙일보 제공>

볼트 9초87

다이아몬드리그 100m 시즌 첫 9초대로 우승

우사인 볼트(29·자메이카)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100m 경기에 나서 올 시즌 처음으로 9초대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볼트는 25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기에서 9초87로 결승선을 통과해 9초90을 기록한 케니 로저스(미국)를 0.03초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4월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벤트성 경기에서 10초12를 기록한 후 3개월 만에 경기를 치른 볼트는 개인 시즌 베스트 기록을 세웠다. 9초87은 올 시즌 IAAF 공인 공종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4위는 저스틴 게이틀린(33·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게이틀린의 올 시즌 최고 기록은 9초74다. 레이스를 마친 볼트는 "출발이 나빴다. 집중력이 잠시 떨어져 출발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그레도 레이스 중반부터 회복했고 결국 우승했다. 출발에서 밀리지 않으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 상태에 대해 "지금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난 여전히 세계 최고다. 한 번도 2등으로 밀린 적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볼트는 남자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 기록 보유자다. 올 시즌 볼트의 목표는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100m, 200m 석권이다. 몸 상태에 따라 400m 계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5점 뒤진 9회말 대추격... 11회 끝냈다

성남고 11-10 제압

광주일고가 8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광주일고가 최근 목동구장에서 끝난 제4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성남고를 연장 11회 혈투 끝에 11-1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07년 서건창(넥센), 허경민(두산), 정찬현(LG) 등을 앞세워 '멀티 홈런'을 터트린 안치홍(KIA)의 서울고를 꺾고 우승을 차

지한 뒤 8년 만의 우승이다. 또 이번 우승으로 통산 6번째 대통령배 제패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광주일고 선발 최승훈과 성남고 선발 성재현의 초반 기싸움이 이어지던 4회말 광주일고가 선두타자 최지훈의 볼넷으로 포문을 연 뒤 2사 2·3루에서 나온 김도길의 적시타로 2-0을 만들었다. 그러나 추가점을 내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성남으로 기울었다. 2-1로 앞선 8회 연속 2루타 등으로 3점을 내준 광주일고가 9회에도 3실점을 하면서 2-7까지 뒤졌다. 마지막 9회 광주일

고의 타선이 대폭발했다. 선두타자 김우중으로 통산 6번째 대통령배 제패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광주일고 선발 최승훈과 성남고 선발 성재현의 초반 기싸움이 이어지던 4회말 광주일고가 선두타자 최지훈의 볼넷으로 포문을 연 뒤 2사 2·3루에서 나온 김도길의 적시타로 2-0을 만들었다. 그러나 추가점을 내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성남으로 기울었다. 2-1로 앞선 8회 연속 2루타 등으로 3점을 내준 광주일고가 9회에도 3실점을 하면서 2-7까지 뒤졌다. 마지막 9회 광주일

타석에 들어갈 때 실수를 잊고 하자는 생각으로 했다. 기회를 준 애들에게 고맙다"며 "전반기 성적이 좋지 못해서 광주일고 선수들 모두 준비를 열심히 잘했다. 운동 분위기도 좋고 이걸 갖는 마음으로 대회를 치렀다. 앞으로 협회장기 대회도 남아있는데 최대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한번 우승하니 또 해보고 싶다. 애들하고 다음 우승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 : 김태진(광주일고) ▲우수투수상 : 김현준(광주일고) ▲감독상 : 정재현(성남고) ▲수훈상 : 홍신서(광주일고) ▲미기상 : 광봉준(광주일고) ▲타격상 : 최근수(덕수고·0.667) ▲최다타점상 : 김태진(광주일고·9점) ▲최다안타상 : 최근수(덕수고·8개) ▲최다홈런상 : 김우중(광주일고·2개) ▲도루상 : 홍현빈(유신고) ▲감독상 : 김선섭(광주일고) ▲지도상 : 강순환(광주일고 부장) ▲공로상 : 양정기(광주일고 교장) ▲모범심판상 : 양재만(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상 : 정재현(성남고) ▲수훈상 : 홍신서(광주일고) ▲미기상 : 광봉준(광주일고) ▲타격상 : 최근수(덕수고·0.667) ▲최다타점상 : 김태진(광주일고·9점) ▲최다안타상 : 최근수(덕수고·8개) ▲최다홈런상 : 김우중(광주일고·2개) ▲도루상 : 홍현빈(유신고) ▲감독상 : 김선섭(광주일고) ▲지도상 : 강순환(광주일고 부장) ▲공로상 : 양정기(광주일고 교장) ▲모범심판상 : 양재만(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의 파격... 무한경쟁 불 붙인다

고졸 루키 황대인 첫 1군 등록

엔트리에 박정수 등 신인 3명

1군 출장 선수 54명으로 늘어

54번째 선수가 등장했다. KIA의 2015 시즌은 무한 경쟁이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엔트리 두 자리를 교체했다. 내야수 이인행과 투수 김태영을 빼고 그 자리에 각각 황대인(사진)과 홍건희를 불러들였다. 전반기 막바지 부진으로 내려갔던 홍건희에게는 1군 재입성, 고졸 루키 황대인에게는 프로 첫 1군 등록이었다. 황대인이 이날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올 시즌 1군 출장 기록에 이름을 올린 KIA 선수는 총 54명이 됐다. '리빌딩의 해'로 출발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도 파격적인 올 시즌이다. KIA 벤치는 이름값을 뺀 고졸 1군 콜업과 기용으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동안 정체됐던 '무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황대인의 등장으로 고졸 투수 박정수와 대졸 외야수 김호영 등 세 명의 신인이 1군 엔트리에 차지하게 됐다.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던 김호영이었지만 마무리 캠프 때 유심히 살펴봤던 김기태 감독은 4월22일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팬들에게도 낯선 선수였던 김호영은 상대 선수들까지 감탄하게 하는 수비 실력을 선보이며 1군 자리를 지키고 있

다. 박정수도 깜짝 등장이었다. 이대진 코치가 적 적어둔 오기와 배짱을 믿고 6월3일 처음 1군으로 불러들이며 기량을 테스트했던 김기태 감독은 7월3일 다시 박정수를 호출했다. 이번에는 선발자리까지 맡기면서 강하게 키우고 있다. 신인들의 등장에 치열해진 경쟁은 1·2군에 모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황대인의 등장도 파격적이다. 수비 약점 탓에 코칭스태프를 망설이게 했던 황대인이지만 퓨처스 올스타전 홈런을 시작으로 23일 삼성과의 2군 경기에서는 5타수 5안타 5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어필을 했다. '무력 시위' 끝에 1군에 등장한 황대인은 프로 첫 등록 날 선발출전 기회까지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

김기태 감독은 "2군에서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 (좌타자인) 이인행의 말소는 어제 경기와는 1%도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한 경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좌완) 레일리가 나오기도 하고 좌타자 대타로 신중권, 김원섭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확률적으로 선택을 했다"며 "(황대인을 원래 포지션인 3루에 넣고) 이범호를 1루, 필을 2루에 넣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그러면 주 포지션들이 바뀌는 거라서 2루수로 처음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새 얼굴들의 파격 등장과 활약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KIA의 2015시즌. 무한 경쟁의 바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투수 최영필·포수 이성우 '이달의 감독상'

KIA 베테랑 투수 최영필과 포수 이성우가 김기태 감독이 선정하는 '이달의 감독상'의 주인공이 됐다. 최영필은 지난 6월 한 달간 6차례 중간계투로 등판해 6이닝 동안 0.00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승 1홀드를 기록했다. 5개의 탈삼진을 슈어내는 등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투구를 보이며 팀 승리에 발판을 놓았다. 이성우도 6월 16경기에 나와 홈런 하나 포함 30타수 9안타, 0.3000의 타율로 5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다. 또 '안방마님'으로 투수들을 리드하면서 6월 마운드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광주 롯데와의 경기에서 시상식을 하고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한편 이달의 감독상은 팀워크 향상과 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신설됐으며 연희한방병원의 후원으로 매달 투수·야수 각 1명씩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팀을 위해 희생하며 공헌한 선수 가운데 김기태 감독이 직접 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원정 10연전 끝 광주FC '집으로'

K리그 클래식 23R 포항과 0-0... 3승5무2패

광주 FC가 포항전 무승부로 '지역의 원정 10연전'을 3승5무2패로 마무리했다. 광주 FC가 지난 2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2015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6월3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로 시작된 원정 10연전의 마지막 종착지는 포항이었다. 지난 울산전 승리 이후 2연승에 도전했던 광주는 연승을 잇지는 못했지만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등 3승5무2패(승점 14)의 성적을 안고 안방으로 복귀하게 됐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광주의 일원이 된 새 얼굴들이 첫 선을 보였다. 남기일 감독은 이적생인 골키퍼 최봉진을 최후방에 세우고 최전방에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 카시아노를 내세웠다. 정호정-안영규-김영민-이종민으로 포백을 구성했고, 이찬동과 여름이 중원에 섰다. 김호남과 송승민은 좌우 측면을 담당했고 카시아노는 중심으로 그 아래 파비오가 배치됐다. 광주의 점유율 축구는 계속됐다. 전반전 시작과 함께 광주는 점유율을 높여가며 포항을 리드했지만 패스 전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찔한 슈팅 기회를 내줬다. 공격에서는 슈팅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전반전 슈팅을 남기지 못했던 광주는 여름의 슈팅으로 후반을 열었다. 후반 4분

에는 카시아노가 유효슈팅을 남기며 포항을 압박했다. 남기일 감독은 후반 10분 카시아노를 빼고 주현우를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포항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다. 프리킥, 코너킥 상황에서 매서운 슈팅이 나오면서 광주의 수비를 흔들었다. 위기 상황에서 골키퍼 최봉진이 슈퍼세이프를 선보이며 광주 팬들에게 감동적인 인상을 남겼다. 후반 23분 포항이 김대호를 빼고 최재수를 투입하자 광주는 파비오를 빼고 장신 수비수 오도현을 출격시켰다. 그러나 교체 3분 만에 오도현이 큰 부상을 당하며 그라운드 밖으로 실려나왔다. 공중볼을 따내기 위해 높게 뛰어오른 오도현이 깊이 파고든 상대 선수에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착지 과정에서 팔꿈치가 탈골되면서 오도현은 후반 29분 조용태와 교체됐다. 오도현의 부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자 광주는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작전에 나섰다. 막바지 포항의 기세가 매서웠지만 광주는 최봉진의 슈퍼 세이프와 함께 실점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5분의 추가 시간. 막판 공세에도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경기 후반전 원정 10연전을 끝낸 광주는 오는 8월12일 전남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안방에서 6연전을 소화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